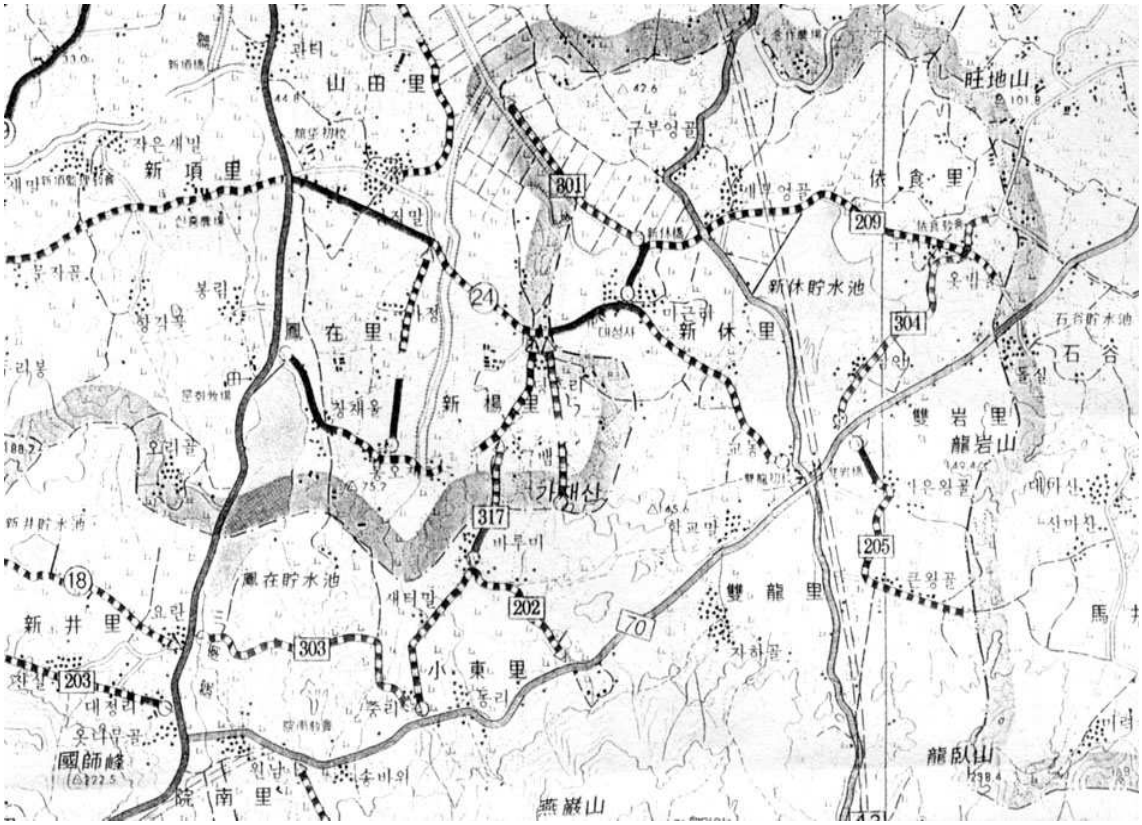
의식리•衣食里

의식리는 본래 아산군 이동면의 지역으로서 의식의 걱정이 없는 골이라 하여 옷밥골 또는 의식동이라 하였다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두미동을 병합하여 의식리라 하여 음봉면에 편입되었다.

의식리는 총 290명이 살고 있으며 가구수는 총 79가구로 61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의식리 위치도>



▨ 뒤미, 옷밥골 마을

지금으로 부터 약 150년 전에 뒤미 옷밥골로 명칭이 되었으며 그 후 의식리로 마을명을 바꾸면서 전해 내려오기를 옷밥골을 상징하며 옷 많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보니 의식리로 호칭을 바뀌었다고 전해진다.

<조사당시 의식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 치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적한 마을로 면소재지로부터 북동쪽으로 6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마을로 휴대리와 천안 성환읍과 경계가 된다.

2) 현 황

의식리의 인구현황을 보면 남자 146명 여자144명 으로 총290명이다.

총 79가구중 61가구인 7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경지 현황에서 과수농가가 많아서 인지 밭의 면적이 논의 면적보다 넓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인구분포현황

구분 마을	계	남자	여자
뒤미, 옵밥골마을	290명	146명	144명

- 생업

구분 마을	계	농업	기타
뒤미, 옵밥골마을	100%	77%	23%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	계	논	밭
뒤미, 옵밥골마을	112.8ha	42.6ha	70.2

- 농기계 보유현황

구분 마을	경운기	트랙터	양수기	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뒤미, 옵밥골마을	40	120	5	7	15	5

- 문화시설

구분 마을	마을회관	앰프	사물놀이악기	방송시설
뒤미, 옵밥골마을	1	1	1조	1

- 연령분포

구분 마을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뒤미, 옵밥골마을	15	30	20	20	60	50	60	30	10

- 성씨별분포

구분 마을	김씨	이씨	박씨	정씨	기타
뒤미, 옵밥골마을	13%	15%	18%	12%	42%

- 학생분포

구분 마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뒤미, 옵밥골마을	15명	10명	10명	7명

- 최고령자

성찬희 할머니로 87세이시다.

- 호당평균소득

년/2,500만원

3) 자연 경관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마을로 주변지역이 논으로 둘러싸여 있고, 과수원이 언덕에 병풍처럼 되어 있다. 휴대리의 휴대저수지와 가깝다.

4) 마을 변천과정

의식리는 아산군 이동면의 지역으로서 의식의 걱정이 없는 골이라 하여 옷밥골 또는 의식동이라 하였다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두미동을 병합하여 의식리라 하여 음봉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의식리 백씨가 약 300년전부 살았다고 전해지며 지금은 몇가구 안된다. 의식리에는 김씨, 이씨, 박씨, 정씨 등도 많이 살고 있다.

6) 지 명

·구억말 고개 : 옷밥골에서 둔포면 신왕리 구역말로 가는 고개.

·성환 고개 : 옷밥골에서 천원군 성환으로 가는 고개.

·왕골 고개 : 옷밥골에서 둔포면 신왕리 왕골로 가는 고개.

·왕지 고개 : 옷밥골에서 천원군 성환면 율금리 왕지 밑이 됨.

·옷밥골 : 의식리의 으뜸가는 마을. 의식에 걱정이 없다하여 지어진 이름.

·왕지골 : 옷밥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왕지산 밑이 됨.

·옷밥골내 : 쌍룡리 연암산과 용화산에서 발원하여 신휴리를 거쳐 운교리에서 거무내와 합류함.

·뒤미(두미) : 옷밥골 옆에 있는 마을

·의식동 : 의식리

7) 전 설

이 마을에서 전해지는 전설은 조사되지 않았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 행사

이 마을에서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집단행사는 없으나 마을 주민들간의 작은 계와 친목회등으로 마을 주민들간의 친목을 다지고 있다.

9)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

이 마을에서 특별히 소개할 만한 인물은 조사되지 않았다.

10) 종교 단체

이 마을에는 종교단체가 없으며, 마을 주민들은 주변의 절이나 교회로 다니고 있다.

11) 공장 현황

현재 이마을에서 가동중인 공장은 조사되지 않았다.

12) 마을의 특성

1975년도에는 담배를 재배 하다 봉숭아를 심어 고소득을 올리었었고 배나무로 수종 갱신하여 지금은 배를 재배하고 있으며 1990년도에는 마을의 주작목인 배를 저장하는 저온저장고를 신축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마을로 발전하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다.